

## 제10장

### 세째 환상: 일곱 나팔 심판(8-11장)

일곱 나팔 심판은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보응으로 전개된다. 인 심판이 심판의 내용에 초점을 두었다면, 나팔 심판은 심판의 방법 또는 도구에 초점을 둔다.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아 각 나팔을 불 때마다 세상에 재앙이 하나씩 내려진다. 나팔 심판은 애굽의 열 가지 재앙을 배경으로 한다. 애굽에 우박과 불, 피, 쓴 물, 흑암, 황충(떼뚜기들) 등의 재앙이 내려졌는데, 지금 하나님은 애굽에 내리신 그 동일한 재앙들을 세상에 내리신다.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에 7일 동안 나팔을 불어 그 성에 경고하였고, 이 경고를 무시한 여리고 성은 결국 멸망하고 말았다.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철옹성 같은 여리고 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것이다. 이와 같이 나팔 심판은 악한 세상의 멸망을 경고하는 심판이다.

나팔 심판은 세상의 삼분의 일의 생명만 취한다. 이것은 세상에 대한 완전한 심판이 아니라, 부분적인 심판을 말한다. 이는 세상의 죄악을 경고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으로 그들의 죄악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제 나팔 심판 방법을 살펴보자. 처음 네 나팔 심판은 자연계(땅, 바다, 강, 하늘)를 통해 세상을 간접적으로 심판한다.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나팔 심판은 악령들을 통해 세상을 직접적으로 심판한다.

#### 1. 첫째 나팔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지매 땅과 수목과 각종 푸른 풀의 삼분의 일이 타 버린다(8:7). 인의 심판에서는 사분의 일이었다는 것이 나팔 심판에서는 삼분의 일로 늘어난다. 삼분의 일이라는 숫자는 이 재앙으로 인해 아직 세상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한다. 천사가 우박과 불로 수목과 각종 풀을 태우는 이 장면은 우박과 불을 내려 애굽 땅의 모든 수목과 나무를 타 죽게 한 애굽의 일곱 번째 재앙을 연상케 한다(출 9:22-25).

여호와께서 우렛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니...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가 상하였으나(출 9: 23-25, 31)

애굽에 내린 우박과 불은 나무와 채소와 곡식을 불태웠을 뿐만 아니라, 애굽에 기근도 가져왔다. 이는 세상에 기근을 가져온 세 번째 인 심판과 동일한 재앙이다.

산불로 인해 전 세계 숲의 삼분의 일이 불타 없어진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 이 산불로 인해 숲은 말할 것도 없고, 숲에 사는 동물들도 엄청난 죽음과 피해를 당하게 될 것이다. 오늘날에도 대형 산불로 인해 매 시간 축구장 300개 면적의 숲이 파괴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땅의 황폐화와 공기오염이 진행되어 많은 생명체가 멸종과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 한 통계에 의하면, 매일 100종 이상의 생명체가 멸종을 당한다. 이는 해마다 35,000 종 이상의 생명체가 멸종당하고 있다는 말이다.

뿐만 아니라, 세계는 끊임없는 화재로 수많은 가옥들과 건물들과 상가들이 파괴되고 있다. 1666년에는 런던에 대화재가 발생하였는데, 이 화재로 인해 런던의 대부분의 가옥들과 건물들이 타 없어져버렸다. 이는 런던의 13,200채의 가옥과 87채의 교회와 대부분의 건물들이 파괴되어 버렸으며, 도시의 8만 명의 주민들 중에서 약 7만 명의 주민들의 집이 파괴되어버린 화재였다. 화재로 인해 당시 런던의 사람들은 오랫동안 굶주림과 헐벗음에 시달려야 했다고 한다. 이와 같이 첫째 나팔 심판은 세상의 끊임없는 화재로 사람들이 죽음과 고통을 맛보는 것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비롯되다는 것을 보여 준다.

## 2. 둘째 나팔

둘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바다이다.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바다의 삼분의 일이 피가 되고, 바다의 생명체의 삼분의 일이 죽고,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어진다(8:8-9).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바다는 피로 변하고, 바다 속에 살던 생명체들은 죽고, 바다 위를 떠다니던 배들은 파괴되어 버린다. 이러한 장면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계시록 18장에서 그 의미를 알 수 있다. 부패한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바다에 던져져 멸망을 당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18:21).

‘큰 성 바벨론이 바다에 던져져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 있도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게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화 있도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희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계 18:15-19).

이는 풍요와 쾌락을 추구하던 바벨론이 한순간에 망한다는 뜻이다. 당시 무역은 전부 바다의 상선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런데 바다 위의 상인들이 왜 애통하며 울게 되었을까? 그들이 소유한 모든 귀한 물건들이 다 불타 없어져버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불 붙는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져 배들의 삼분의 일이 깨졌다’라는 말은 부와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이, 큰 성 바벨론이 불탄 산이 되어 바다에 던져져 다 멸망한 것같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그럼 ‘바다가 피로 변했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바다가 심각하게 오염되었다는 뜻이다. 오늘날 전 세계의 해역과 해양의 오염은 생태계에 큰 위협을 줄 정도로 매우 심각하다. 특히 항만공업지역의 오염은 세계적으로 두통거리가 된지 오래다. 바다에 온갖 화학물질, 기름, 오물, 플라스틱 쓰레기와 같은 각종 공해물질이 유입되면서 바다는 죽어가고 있다. 최근 한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800만 톤 이상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플라스틱 쓰레기는 분해되지 않고 잘게 쪼개져 독성 물질과 결합한 채 바다에 축적되어 프랑크톤이나 바다 밑의 생물들에 흡수되면서 바다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바다의 오염은 바다 생물의 멸종을 초래하며, 사람들에게도 생계를 위협하는 큰 재앙이 되고 있다.

### 3. 세째 나팔

세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땅에 있는 물이다. 세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썩’이라고 불리는 큰 별이 하늘에서 강들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삼분의 일이 썩게 되어 그 물을 마시는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된다(8:10-11). 이 장면은 나일 강이 피로 변한 애굽에 내린 재앙을 배경으로 한다.

썩은 아주 쓰다. 따라서 물이 썩처럼 썩게 되었다는 말은 물의 오염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게 되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을 심판하실 때 자주 쓰인 단어가 바로 썩이다.

그 조상들이 자기에게 가르친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렘 9:14-15)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그러므로...내가 그들에게 썩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렘 23:13,15)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일로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 즉 썩을 먹는 일을 자초했다. 애굽에 내린 재앙으로 나일 강이 피로 변해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이 세째 나팔 심판은 물의 오염이 세계로 확대되어 세상의 모든 자들이 고통을 겪게 될 것을 보여 준다.

물은 생명의 기본이다.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요소이다. 세계의 마을과 도시가 강과 하천을 중심으로 형성된 것은 물의 중요성 때문이다. 그런데 세계의 강과 시내와 샘들의 삼분의 일이 오염되어 마실 수 없게 되었다니, 이것이야말로 끔찍한 재앙이 아니던가?

최근 한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11억 명이 이상의 인구가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500만 명 이상이 물 부족과 오염으로 목숨을 잃고 있다. 지금도 아프리카의 많은 주민들은 매일 물 한 동을 얻기 위해 몇 시간의 거리를 다녀 온다. 이렇게 부족하고 오염된 물로 세상이 어려움과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것은 세상이 스스로 자초한 재앙이라 할 수 있다.

#### 4. 네째 나팔

네째 나팔 심판의 대상은 하늘이다. 네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와 달과 별의 삼분의 일이 어두워져 버린다(8:12). 이는 삼일 동안 흑암에 거하게 한 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이 재연되는 장면이다. 우리는 애굽에 내린 이 흑암 재앙이 그 이후로도 선지자들에 의해 종종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암 8:9)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무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돌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사 13:9-10)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태양의 빛과 열에 의한 에너지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데 태양을 비롯한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생물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오늘날의 세상을 보라. 세상은 지구온난화 현상으로 홍수, 폭우, 사막화,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가

유발되어, 이로 인해 발생한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위태로워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계의 변화로 세상의 생명체가 큰 위험 속에 놓이게 된 것은 타락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것으로 잊지 말아야 한다.

## 5. 다섯째 나팔

다섯째 나팔 심판이 시작하기 전에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에서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이 있음이로다”(8:13)라고 외친다. ‘땅에 사는 자들’이란 세상의 불신자를 의미한다. 즉 독수리의 외침은 나머지 세 개의 심판이 이전의 첫 네 개의 나팔 심판보다 더 크고 무서운 심판을 세상의 불신자들이 당하게 된다는 것을 경고하는 소리이다.

다섯째 나팔 심판은 메뚜기(황충) 재앙이다(9:2-11). 메뚜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은 농작물에 끼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이다. 2020년 3월에 수많은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와 서남아시아 일대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이들이 지나간 모든 곳이 한 순간에 폐허가 되어버렸다.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600억 마리의 메뚜기가 집계되었는데, 이러한 메뚜기 떼가 동아프리카 전역과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퍼지면서 닥치는 대로 농작물을 먹어치워 버렸다. 한 보고서는 1km<sup>2</sup> 면적의 무리가 하루에 무려 3만 5,000인분 식량을 해치워 버렸다고 한다. 이러한 메뚜기 떼로 인하여 농작물이 초토화되어 버린 것이다. 그러므로 다섯째 나팔의 메뚜기 떼의 출현은 큰 재앙이라 말할 수 있다.

메뚜기 떼를 통한 심판은 애굽의 여덟 번째 메뚜기 재앙과 요엘 2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한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바벨론 군대를 그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셨다.

이에 대해 선지자 요엘은 ‘메뚜기 떼가 이스라엘의 모든 농작물을 먹어치웠다’(을 1:4-7)라고 묘사하였다. 이와 같이 요한도 악령들이 불신자를 괴롭히는 일들을 메뚜기 떼의 재앙으로 비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한다.

다섯째 천사는 메뚜기 떼를 향해 ‘땅의 풀을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고 명한다(9:4).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는 세상의 불신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메뚜기 떼가 세상의 불신자만 공격한다는 것은 메뚜기가 세상을 지배하고 괴롭히는 ‘자기 파멸’의 마귀적 특성을 보여 준다.

메뚜기 떼는 ‘무저갱’에서 올라왔다(9:2). 무저갱은 사단이 1,000 년 동안 결박된 곳으로((20:2-3), 악령들의 거주지인 동시에 악령들의 감옥이다. 그러므로 무저갱에서 올라온 메뚜기는 자연계의 메뚜기 떼가 아닌 사단의 부하인 악령 또는 귀신을 상징한다.

하나님은 악령들에게 불신자들을 ‘5 개월 동안’ 괴롭히라고 명하신다(9:5). 여기서 ‘5 개월’은 문자적인 5 개월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본래 자연계의 메뚜기는 5 개월 동안만 생존한다. 즉 메뚜기가 생존할 수 있는 5 개월은 마귀가 완전히 멸망하는 날까지, 즉 세상이 끝날 때까지 불신자를 괴롭히라는 뜻이다. 이때 악령들이 괴롭히는 고통이 너무 커서 ‘전같이 사람을 쓸 때에 괴롭게 함과 같다’고 표현한다. 악령들에 시달리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불신자들은 죽기를 소원할 만큼 매우 고통스럽다는 것이다(9:6). 이와 같이 타락한 세상은 예수님의 재림 날까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힘든 정신적, 육체적인 고통 속에서 지내게 될 것이다.

## 6. 여섯째 나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는 놓이게 된다. 네 천사는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7장 1-3 절에 등장한 네 천사이다. 네 천사는 전에 심판을 행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침받을 때까지 잠시 중지당하였다가 다시 심판이 허락되어져 지금 2억의 마병대의 지휘관으로 다시 등장한 것이다(9:16).

네 천사가 결박되었다가 놓임을 받은 곳은 바로 유브라데 강이다. 이 유브라데 강은 가나안과 바벨론 제국의 국경선이다. 바벨론은 수시로 이 강을 넘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 로마 제국 당시에 이 강은 로마의 동쪽 경계선으로, 이 강 건너편에는 기마병으로 유명한 파르티아 제국이 있었다. 로마 또한 이 강을 넘어 파르티아 제국을 침공하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유브라데 강은 적대 국가의 침공을 상징한다.

네 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놓인 것은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 위한 것이었다.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일 수 있는 것은 이들이 이끌고 있는 엄청난 마병대의 수 때문이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대는 보조병까지 합쳐 25만 명 정도였다. 오늘날의 전 세계 군인의 수도 약 2천만 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2억이라는 것은 오늘날 군대의 10 배나 되는 엄청난 수이다. 마병대의 수가 이만큼 많다는 것은 전쟁으로 인해 사람 삼분의 일이 죽임을 당한다해도 전혀 이상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여섯째 나팔 심판에 대한 세상의 반응은 어떠했을까?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9:20). 타락한 세상은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엄청난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았다. 이는 세상이 얼마나 패역하고 완악한지를 잘 보여 준다.